

굿 초이스

16학번 박수호

1년 동안 집행부의 일을 맡으면서 참 많은 일이 많았었는데, 신입생으로서의 입장과 집행부로서의 입장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잦아 선택의 고민에 빠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을 완수했을 때, 그 보람찬 기분은 쉽게 느낄 수 없을 것 입니다. 비록 이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분명 저 자신에 대한 도전과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발판으로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저는 이 선택을 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그때의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의 선택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했던 활동들, 행사들을 지나오면서 참여해주었던 많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의 1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본적도 있습니다만, 다시 돌이켜 보니 후회되는 것들도 많고 이랬으면 어땠을까...하고 생각해본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고 다시 한다면 아쉬움의 여운보단 이런 고민들이 몇 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앞일을 생각해보며 우리들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했던 활동들을 돌이켜보며 추억했던 시간들을 기다리며 내년에 새로운 만남을 기약해봅니다.